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AP: 7월 인플레이션 연율 2.6%로 변동 없어...핵심 물가는 2.9% 상승
- Bloomberg: 강한 인플레이션 불구하고, 소비자 지출은 탄탄해
- Bloomberg: 미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락...경제 전망 우려로
- Reuters: 7월에 미 무역적자 크게 상승
- Bloomberg: 연준 이사 Waller, "9월 금리 인하에 향후에도 인하 예상"
- Bloomberg: 이코노미스트들, "내년으로 가면서 미 성장 둔화, 계속되는 인플레이션" 전망

[무역 전쟁]

- Reuters: 미국의 압박으로 삼성, SK 등의 중국 내 반도체 제조 힘들어질 듯

[주택]

- Bloomberg: 미 모기지율, 소폭 하락...30년은 6.56%

[오일]

- Bloomberg: 유가 월간 하락세...공급 과잉 및 지정학적 요인 우려

[인공지능]

- WSJ: 알리바바, AI 칩 개발...중국의 엔비디아 공백 채운다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WSJ: 가정용품 가격 상승하고 있다
- WSJ: PepsiCo, 배터리 전기 대형 트럭 선도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[미국 경제]

AP: Key US inflation gauge holds mostly steady though core inflation ticks higher

7월 인플레이션 연율 2.6%로 변동 없어...핵심 물가는 2.9% 상승

-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수는 7월에 변동이 없었다. 그러나, 핵심 물가지수는 상승했다.
- 연방상무부의 오늘 금요일 발표에 따르면 개인소비지출(PCE) 물가지수는 작년 동월에 비해 2.6% 상승해 6월 연율과 같았으며,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PCE 핵심 물가지수는 7월에 연율 2.9%를 기록했다. 6월에는 2.8% 였다.
- 이 같은 수치는 연준의 많은 관리들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. 물론 물가는 3년 전 피크였던 7%대보다 훨씬 낮지만 여전히 연준의 2% 목표치보다 높은 상태다.

AP 기사

Bloomberg: US Consumer Spending Shows Resilience Despite Stubborn Infla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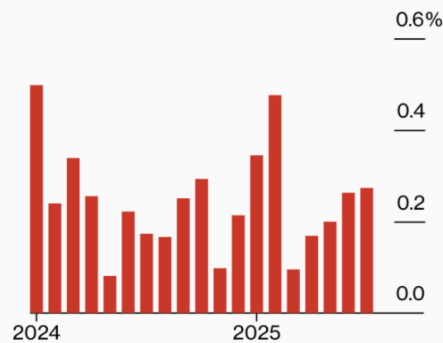
강한 인플레이션 불구하고, 소비자 지출은 탄탄해

- 7월 미 소비자들의 지출은 4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였다.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소비 수요는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향후 수개월간 제품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미국인들의 지출은 계속되고 있다. 그러나 생활비가 오르고 일자리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견고한 소비 지출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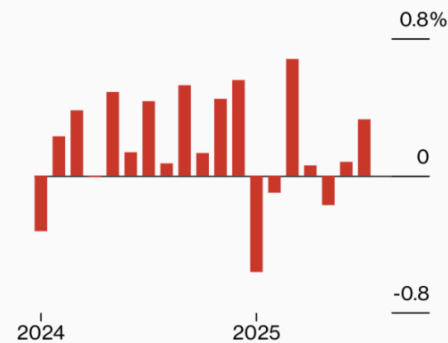
US Consumer Remains Resilient Even as Prices Rise

Personal spending rose by the most in four months in July

Core PCE price index (MoM)



Real personal spending (MoM)



Source: Bureau of Economic Analysis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US Consumer Sentiment Declines on Dimmer Views of Economic Outloo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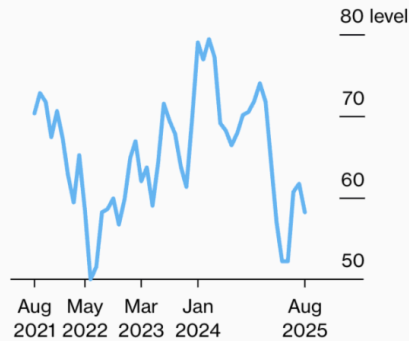
미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...경제 전망 우려로

- 관세에 따른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미 소비자들의 신뢰지수가 지난 3개월동안 가장 떨어졌다.
- 오늘 금요일 미시간대 8월 최종 소비자 신뢰지수는 7월에 61.7에서 8월 들어 58.2로 줄었다.
- 소비자들은 내년 물가가 연율 4.8%로 증가할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지난달 연율 4.5%보다 물가 예상치가 높아졌다. 이들은 물가 비용이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3.5%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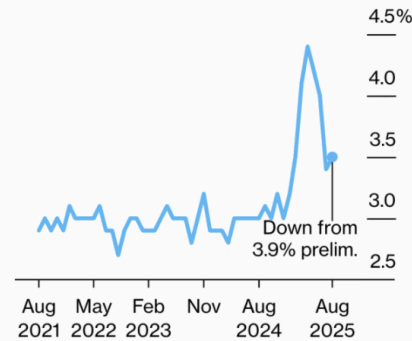
US Consumer Sentiment Retreats

Despite lingering inflation concerns, a long-run price gauge improved from earlier in the month

Consumer sentiment index



Expected long-term inflation rate



Source: University of Michigan

Note: Reflects average annual inflation over next five to 10 years

Bloomberg 기사

Reuters: US goods trade deficit widens sharply in July

7월에 미 무역적자 크게 상승

-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미 상품 무역적자는 7월에 크게 늘어났다. 이는 3분기에 무역이 미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.
- 지난달 상품 무역적자는 22.1% 상승한 1천36억 달러로 나타났다고 연방 상무부는 오늘 금요일 밝혔다.
- 특히 상품 수입은 1백86억 증가한 2천8백15억 달러 되었다. 반면에 상품 수출은 1억 달러 축소해 1천7백80억 달러로 나타났다.

Reuters 기사

Bloomberg: Fed's Waller Sees Quarter-Point Cut in September, Then More

연준 이사 Waller, “9월 금리 인하에 향후에도 인하 예상”

- 연준 이사인 Christopher Waller는 연준의 보다 낮은 금리를 요구하면서 자신은 9월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.
- 그는 또한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되며 인하 속도는 향후 경제지표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.
- 그는 노동시장의 바람직하지 않은 약세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적절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연준은 현재 금리를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Economists See Slow US Growth, Stubborn Inflation Well Into 202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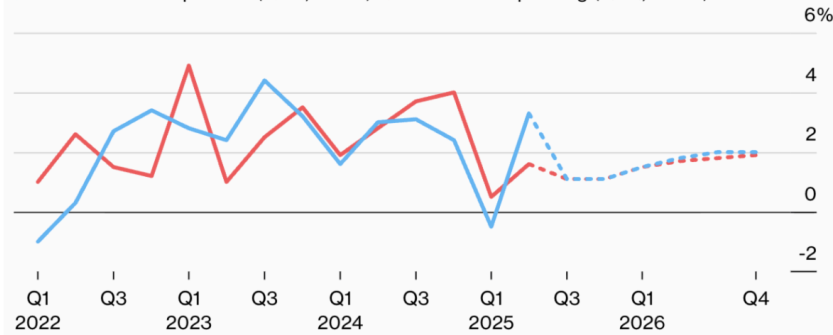
이코노미스트들, “내년으로 가면서 미 성장 둔화, 계속되는 인플레이” 전망

-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 접어들면서 미 경제 성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지속적인 인플레이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.
- 미 경제의 엔진인 소비 지출은 올해 3, 4분기에 1.1%로 늘어나고 핵심 물가지수는 4분기에 평균 3.2%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다.
- 실업율은 4분기와 내년 대부분의 기간동안 4.4%로 상승하겠지만 향후 12개월간 침체 가능성은 32%로 올해 3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.

Economists Plot Mostly Sub-2% US Growth Through 2026

Economists also project consumer spending will remain moderate

— Gross domestic product (QoQ, SAAR) — Consumer spending (QoQ, SAAR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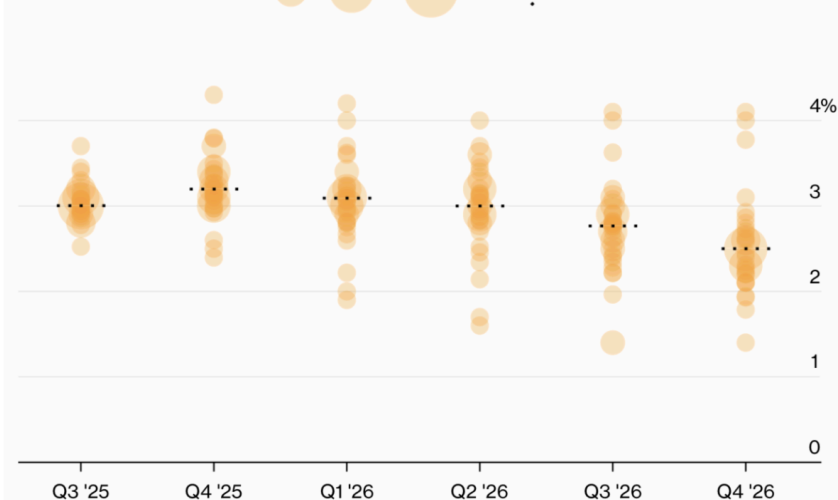
Source: Bloomberg

Note: Dotted lines reflect projections in survey of economists conducted Aug. 22-27

Core Inflation Expected to Remain Elevated Well Into 2026

Change in PCE price index, excluding food and energy (YoY)

Number of forecasters: 1, 5, 10, 15. Median forecast



Bloomberg 기사

[무역 전쟁]

Reuters: US to make it harder for Intel, SK Hynix and Samsung to make chips in China

미국의 압박으로 삼성, SK 등의 중국 내 반도체 제조 힘들어 질 듯

- 미국은 삼성과 SK 하이닉스,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를 제한할 예정이다. 미 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입 허가를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.
- 당초에 연방상무부는 지난 2022년에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 수출을 대대적으로 제한했는데 이 당시 이들 기업들에게 예외적으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위해 장비 중국 도입을 허가했었다.
- 앞으로는 중국 내 생산을 위해 수입 라이선스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. 그동안에는 특별 허가로 라이선스 허가가 필요없었다.

Reuters 기사

[주택]

Bloomberg: Mortgage Rates Fall Slightly, Sending 30-Year Loans to 6.56%

미 모기지율, 소폭 하락... 30년은 6.56%

- 미국 모기지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. Freddie Mac은 30년 고정 대출의 평균 금리가 지난주 6.58%에서 6.56%로 하락했다고 밝혔다.
- 7월 미국 재판매 주택 매매 계약 건수는 두 달 연속 감소하였고, 주택 매도자 수 또한 5월보다 약 14,000명 감소했다.
- 주택 구매자들은 높은 주택 가격 및 고금리로 주택 구매를 미루고 있으며, 이제는 매도자들도 적은 수요로 인해 매물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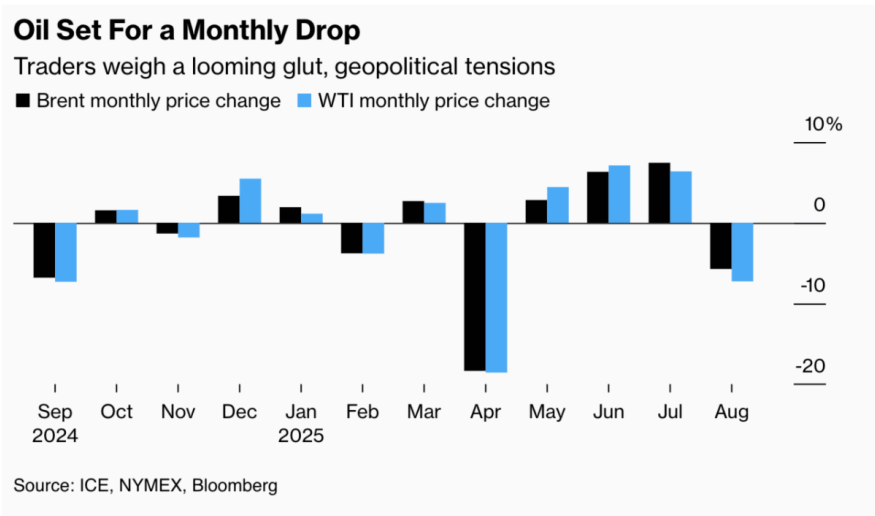
Bloomberg 기사

[오일]

Oil Heads for Monthly Loss as Traders Weigh Glut, Geopolitics

유가 월간 하락세 손실...공급 과잉 및 지정학적 요인 우려

- 유가가 공급 과잉 우려와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지정학적 요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월간 손실(하락세)을 보였다.
- 브렌트유는 배럴당 68달러 선까지 하락했고,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64달러 선에서 거래되며 이달 7%가량 하락했다. 8월 들어 유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
- Danske Bank의 전략 담당자 Naervig Pedersen은 “미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 속 OPEC+의 증산으로 공급은 안정적이다”라며 “미국은 러시아 원유 구매국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”고 전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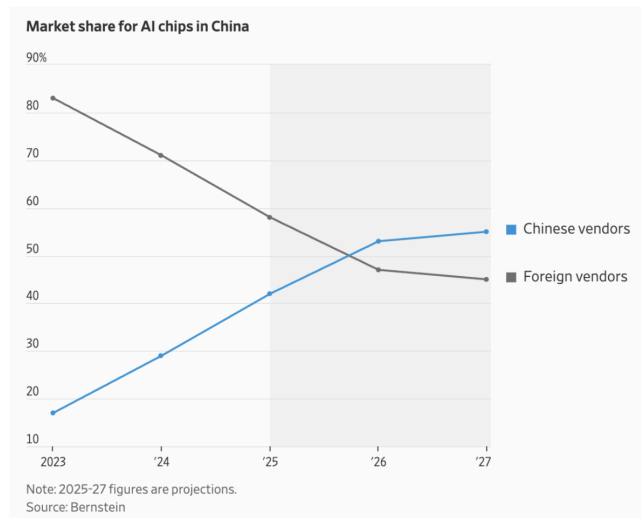
Bloomberg 기사

[인공지능]

WSJ: Alibaba Creates AI Chip to Help China Fill Nvidia Void

알리바바, AI 칩 개발...중국의 엔비디아 공백 채운다

- 중국 최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알리바바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규제 장벽에 부딪힌 이후에 생긴 공백을 메우고자 새로운 AI 칩을 개발했다.
- 중국 공장들이 미국의 칩 제조 기술 접근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, 엔비디아의 H20 칩을 대체할 제품을 개발하는 등 AI 역량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.
- 알리바바는 2분기 클라우드 매출이 26% 올랐다고 밝힌 바 있으며,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AI 모델 중 하나인 쿼웬(Qwen)을 갖고 있다.
- 그러나,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은 노후된 해외 기계와 성능이 낮은 국내 장비를 사용하는 공장들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

WSJ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WSJ: Higher Prices Are Coming for Household Staples
가정용품 가격 상승하고 있다

- Hormel, Ace Hardware, J.M. Smucker 등 미국 회사들이 육류 가격, 관세 등의 다양한 이유로 소비재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.
- 월마트, 타겟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관세 관련 가격 인상이 일부 시행 중이라고 밝혔으며, 더 많은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있다.
- 7월 소매 다짐육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, 주요 재배 지역의 악천후로 인해 야채의 도매 가격은 작년 대비 약 16% 상승했다.
- 이로 인해 일부 소매업체는 가격을 인상하고 할인혜택을 줄이며 비용 증가를 완화하면서 이익을 증가시키고 있다.
- 고물가에 지친 미국 소비자들은 외식이나 고기 구매를 자제하고 고가 품목 구매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.

WSJ 기사

WSJ: PepsiCo Charges Ahead with Battery-Electric Big Rigs
PepsiCo, 배터리 전기 대형 트럭 선도

- PepsiCo가 Daimler Truck, 볼보 등 배터리 전기 트럭을 배송 운영에 사용 중인 가운데, 최근 배터리 전기 트럭 Tesla Semi의 라인업을 확장했다.
- 이에 관해 PepsiCo의 차량 엔지니어링 이사 Adam Buttgenbach는 소비자의 집 앞에 상품을 배달하는 'Last-Mile' 배송과 지역 배송에 이 전기 트럭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.
- 더 나아가, 많은 트럭 제조업체들이 더 빠른 충전 속도를 가능하도록 만들면서 장거리 노선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.
- 이들은 배터리 전기 트럭을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 총소유비용(TCO)를 살펴본다고 전했는데, 여기에는 초기비용, 에너지 및 유지 보수, 투입 비용이 포함된다.
- 디젤 차량과 비교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일부 부품의 가격이 더 비쌀 수는 있으나, 전기차의 규모가 커지게 될 경우 일부 비용이 대폭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.
- PepsiCo는 이러한 물류 운영 전략이 자사에게 이점을 가져다주며, 지역사회와 지구에 더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.

WSJ 기사

[보고서]

'트럼프 임명' 연준 이사 "앞으로 3~6개월간 금리 인하 예상"
"고용 사정 악화하면 내달 '빅컷' 지지할 수도"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 이사가 향후 3~6개월간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.

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28일(현지시간) 마이애미 경제클럽 연설문에서 노동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.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.

월러 이사는 기준금리를 결정할 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회의에서 "오늘 내가 아는 것에 기반해 25bp(1bp=0.01%)의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...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